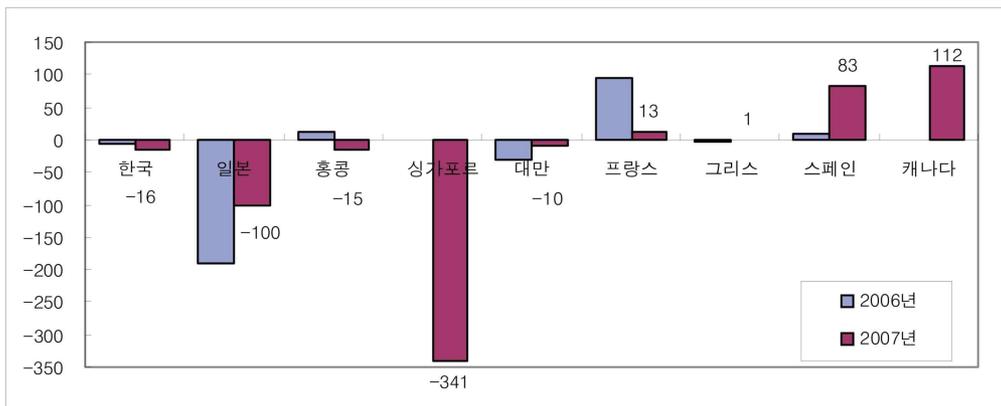


자영자의 일자리 추이*

- 국제노동기구(ILO) 회원국의 2007년 자영자(Own-account workers)의 일자리 변동을 살펴보면, 아시아신흥경제국(싱가포르 -341천 명, 한국 -16천 명, 홍콩 -15천 명, 대만 -10천 명)과 일본(-100천 명)에서 자영자의 일자리가 현저히 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.
 - 전체 일자리에서 자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는 관광산업 위주인 그리스(21.3%)로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 한국(19.1%), 대만(13.6%) 순으로 나타남.
- 국제통화기금(IMF)은 아시아신흥경제국의 2009년 경제성장률이 평균 3.9%에 이를 것으로 전망(2009. 2)하고 있으며, 특히 한국은 마이너스 4%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 이러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영세사업장의 자영자가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등 자영자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.

[그림 1] ILO 자영자의 고용증감 추이(2006, 2007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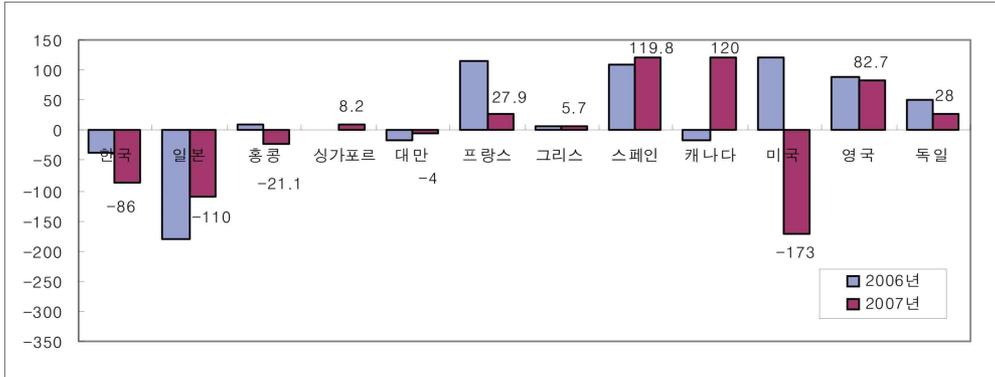
(단위: 천 명, 전년대비)



주: 한국은 2008년 자영자의 일자리가 전년대비 44천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남.

* 자영자(Own-account workers)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의미한다. 비임금근로자는 크게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며, 자영업주는 자영자와 고용주(employers)로 구분된다.

[그림 2] ILO 자영업주(자영자+고용주)의 고용증감 추이(2006, 2007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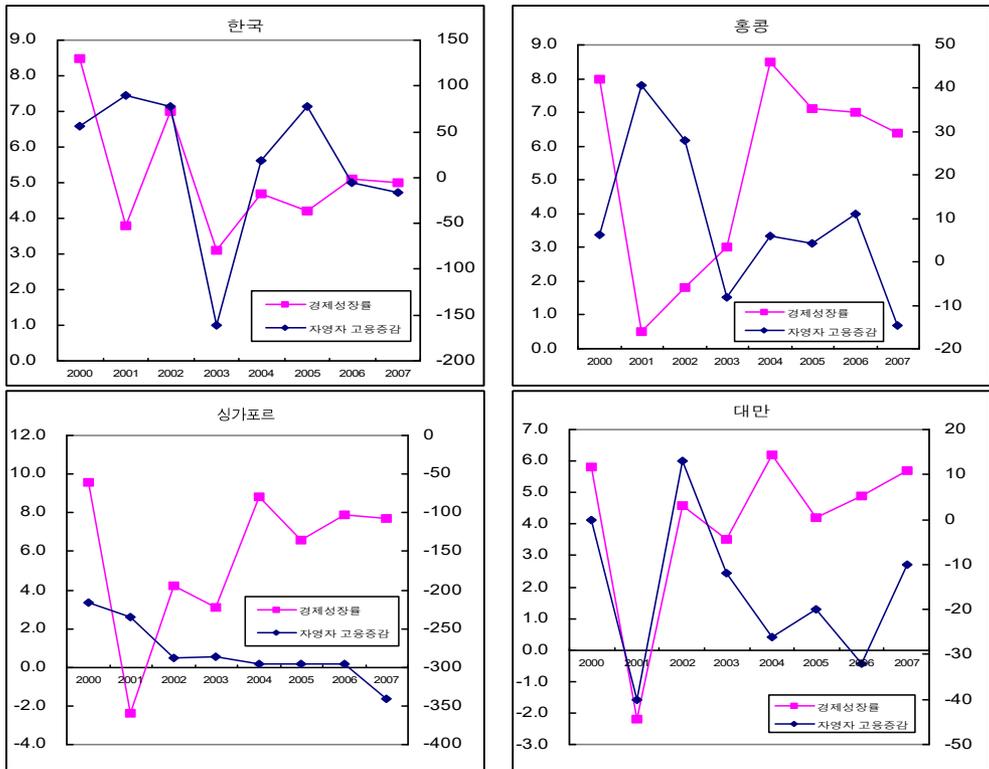


주: 싱가포르의 자영자, 자영업주의 2005년 데이터의 부재로 2006년 고용증감이 파악되지 않음.
 한국은 2008년 자영업주의 일자리가 전년대비 79천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남.

자료: ILO, <http://laborsta.ilo.org/>

[그림 3] 아시아신흥경제국의 경제성장률과 자영자 고용증감 추이

(단위: %, 천 명, 전년대비)



주: 싱가포르는 자영업자의 2005년 데이터의 부재로 2005년, 2006년 고용증감이 파악되지 않아 해당년도에 2004년 고용증감으로 대체함.

자료: OECD, <http://stats.oecd.org/>; ILO, <http://laborsta.ilo.org/>

〈표 1〉 우리나라 자영자의 고용증감 추이

(단위: 천 명, 전년대비)

	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
비임금 근로자	전 체	118 (118)	75 (70)	-252 (-252)	-73 (-72)	8 (8)	-71 (-69)	-137 (-136)	-92 (-89)
	자영자	90 (90)	77 (77)	-161 (-160)	18 (17)	77 (77)	-5 (-6)	-16 (-16)	-44 (-43)
자영자	전 체	90	77	-160	17	77	-6	-15	-44
	도소매업	-54	0	-44	-50	-24	-38	-65	-20
	음식숙박업	-17	11	-17	11	-19	9	4	-17
	기타	161	66	-100	56	120	23	46	-8

주:()안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고용증감임.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.

- 2008년 우리나라 자영자의 일자리는 비임금근로자 7,371천 명의 60.3%에 해당하는 4,443천 명으로, 이는 전년대비 44천 명 감소한 것임.
 - 특히 자영자의 사라진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이 서비스업(31천명)으로 도소매업(20천명), 음식숙박업(-17천명)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.
 -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불어닥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4/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3.4%를 기록하였으며, 고용사정 또한 악화되어 2008년 12월 기준 자영자는 전월대비 217천 명이나 감소하였으며, 이는 사라진 일자리의 38.0%에 해당함. **KLI**

(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)